



1



3



2

1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2025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 미래 모빌리티 비전 이미지
3 스마트모빌리티 솔루션 개념도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전략
통해 미래 모빌리티 선점**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2020년을 미래 시장에 대한 리더십 확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시장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와 제휴 협력,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미래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기반의 혁신과 더불어 로봇, PAV(Personal Air Vehicle : 개인용 비행체)를 기반으로 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폭넓은 영역에서 인간 중심의 스마트 이동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제휴 및 투

자를 강화하는 '오픈 R&D'로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다. 향후 현대차그룹은 ICT 융합, 공유경제,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속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배터리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의 연간 글로벌 판매를 총 67만대(배터리 전기차 56만대, 수소전기차 11만대)로 확대해 고객이 선호하는 글로벌 3대 전동차(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기업으로 도약하며, 한국·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시장은 2030년부터, 인도·브라질 등 신흥시장은 2035년부터 적극적으로 신차의 전동화를 추진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2021년 처음으로 파생 및 전용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며 2024년 이후에는 전동화 라인업을 본격 확대한다. 인포테인먼트를 활용한 혁신적 디지털 사용자 경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감동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고도화된 음성 사용자 경험 및 개인 비서 서비스 적용 등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커넥티드 서비스는 2025년까지 주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확산하고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어 소비심리는 더욱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 모빌리티 비전 구현을 위한 신개념 솔루션으

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배터리 주요 3사와 협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공개했다.



아이오닉 브랜드 렌더링 이미지(왼쪽부터 아이오닉6, 아이오닉7, 아이오닉8)

시장 신차에 커넥티드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구현에 중점을 둔다. 기아차는 2025년 중장기 전략 Plan S에서 글로벌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전기차/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량 공유 확대 등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 신규 기업 고객군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환경 오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적극적인 글로벌 대도시에서 지역 사업자 등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차량 정비 센터, 각종 편의 시설 등이 갖춰진 '모빌리티 허브(Hub)'를 구축한다.

그룹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 'UAM-PBV-Hub'

현대차는 지난 CES에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 구현을 위한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 항공 모빌리티) ▲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 기반 모빌리티) ▲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를 제시했다.

UAM은 PAV(Personal Air Vehicle : 개인용 비행체)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해, 하늘을 새로운 이동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며 PBV는 지상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 동안 탑승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이동 솔루션이다.

Hub는 UAM과 PBV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개념 솔루션이다. 'UAM-PBV-Hub'를 축으로 고객에게 끊임 없는(Seamless) 이동의 자유로움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현대차그룹의 의지가 나타난다.

현대차는 UAM-PBV-Hub 모형을 로비에 전시하고 ▲ 기체 구조 설계 ▲ 기체 구조 해석 ▲ 전기체 시스템 통합 등 총 26개 직무의 인재를 영입하고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28년까지 UAM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